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나의 고백은 민들레 홀씨되고(I)

1 예쁘지도 곱지도 않은 민들레의 삶 무르익어 가는 봄을 창문 너머로 바라본다. 환한 날씨에 꽃들의 향연이다. 말 그대로 지천에 꽃들이 만개하여 눈이 즐겁다. 교정 곳곳에 피어 있는 꽃 중에서 단연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민들레다. 민들레는 노란색과 흰색 두 종류의 꽃이 된다.



박여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북편, 제비꽃, 철쭉, 이슬이 잘 기어나지 않는 야생화 사이로 앞 다투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바로 그것은 역시 노랗게 피어 있는 민들레다. '헤이비 지식백과' 따르면, '민들레'는 '속씨식물문'의 '쌍자엽강'에 속하는 식물로 들관에서 벌이 살아가는 곳에서 자란다. 꽃은 4~5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일과 길이가 비슷한 꽃대 끝에 두상화(頭狀花) 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작은 등꽃이 많이 모여 피어 거리 모양을 이룬 꽃)가 1개 달린다.

나도 모르게 민들레 사랑이 터져 나온다. 그나마 예쁘지도, 아이들은 바라보아 주지도 않는 민들레, 그래도 괜히 생겨온 민들레. 그 민들레는 그렇게 봄이 오면 마음을 감성적으로 이끈다. 노란 민들레는 간단히 봄이 오면, 노랑 빛이 되기도, 노란 모자를 쓴 유치원 아이도, 들관을 수놓은 노란 개나리가 떠오른다.

그리고 이렇듯 우리 아이에게 잃어 주진 통쾌함이 떠오른다. 민들레 홀씨가 헬리콥터가 되면 그림영화를 남기던 열정에 잠시 인가에 웃음이 머문다. 민들레에 관한 시나, 시집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그만큼 많은 시인의 글감이며 창작의 출발점이

민들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들레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소재, 그렇지만 막상 시나 수필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아니다. 지금까지 민들레에 대한 많은 작품이 우리와 함께해오는 것은, 정말 잘 쓰지 않으면 평범함을 넘기가 어려운 작쪽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민들레로 향하는 마음을 글로 옮겨놓은 그 어느 작품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중에서 우리를 찾아온 민들레 소재의 반가운 시집 중 하나가 손순식 시인의 '어느 민들레의 삶', 도서출판 대한, 2020이다. 이 시집은 1부(꽃혼의 언덕), 2부(백목련 가는 길), 3부(어느 민들레의 삶) 4부(상록수 앞)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잊혀진 푸른 추억의 열쇠 '세월'이란, '정말 진실없이 우리를 찾아왔다가 날도 없이 제 반대로 가버리는 녀석'이다. 누가 으라고 조대하한 것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뭐라 딱히 불만을 초래할 수도 없다. 그저 답답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정답이다.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고, 한꺼번에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들의 삶에 세월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씩이 돌아나 꽃이 피고, 나뭇잎이 푸름을 더해 가며 늘 청춘인 것 같다. 그러나 나 열 지고 눈이 내리면 사계절이 완성 된다. 이런 사계절이 하나, 늘 쌓인다 보면, 저마다의 인생극장이 펼쳐진다.

속마음 나누던 정든 친구 떠나간 슬픔은 생인순보다 더 쓰러진 아픔이더라

세월이 흘러 그 환부에 새살 돋으면 꿈에 그리던 파라디스 찾아 정처 없이 긴 여행을 떠나볼까?

의로운 배낭 속에 감추고 당당하게 노를 길을 걸노라면 스펀크~~~~ 잊혀진 푸른 추억의 열쇠가

내 안에 잠긴 지를쇠를 풀어줄까?

오늘도 주치의 말씀에 허비가 엇갈려 나약한 심신 치유 받고자 상록수 숲길을 더듬어 심혼을 씻는다 (-손순식, '세월이 가면', 저부, 62-63쪽-)

시인에게는 /속마음 나누던 정든 친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언제인지도 모르며 떠나가 버렸을지도 알 수 없다. 그 '때'는 나에게 /생인순보다/더 쓰러진 아픔이 /이 된다. 그리워도 떠날 수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리워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뿐이다.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세월을 만들어 낸다.

시인은 위의 시에서, '세월이 흘러 /그 환부에 새살 돋으면/꿈에 그리던 파라디스 찾아 정처 없이 긴 여행을/떠나볼까/라는 '정처 없는 천하는 겁이 없는 호흡이 필요하다. 이 시를 읽는 독자의 현명한 판단은 누구의 몫도 아니다. 바로 독자 자신이다. 후회하지 않을 잊혀진 푸른 추억의 열쇠를 민들레 홀씨와 함께 열어보자.

이 있다. 또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 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행·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자 단속에 힘쓸 것이다. /김선태익산경찰서 신동주대경사

사설

북한 고난의 행군 재개

북한에서 최근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북한은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도쿄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경제 전환을 노리며 '제2의 평창'을 구상하던 우리 정부로서는 주 요 계기를 하나 놓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까지 다시 사용하며 대북제재 극복을 다짐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해빙기를 맞게 된다. 남북은 도쿄 올림픽에 단일팀을 내보내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확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평창의 영광을 재연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선 노동당 세포 비서 대회가 열렸다. 노동당 세포는 5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된 최말단 조직이고, 세포 비서는 이 조직의 책임자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사업, 인민 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당 세포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당 세포 비서들을 모아 놓고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글수록 민생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세포 비서 대회 폐회사에서 당 중앙위원회부터 세포 비서들까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어디에도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이 없다고 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부 자력강생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북 도내 폐석산이 싹대

전북 도내 일부 폐석산의 싹대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주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고 있다. 완주 비봉면의 경우 폐석산에서 흘러 나온 침출수가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기압이 낮고 안개가 깔릴 때면 방독면을 쓰고도 구토가 난다. 폐석산을 덮은 천막 아래에서는 불규칙적인 굉음이 난다. 천막 위로는 수십 개의 배관이 등성 등성 설치돼 있다.

비봉면 폐석산 앞에는 침출수를 담은 파란색 드럼통들과 간이 폐수 처리장이 세워져 있다. 드럼통에는 석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커다란 호스를 타고 계속 채워지고 있다.

10톤, 15톤, 30톤짜리로 구분된 드럼통 옆에는 간이 폐수 정화 시설도 있다. 완주군이 폐기물을 정부 지정 폐기장으로 옮길 시도를 벌기 위해 설치한 것들이다.

완주군은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와 이를 매립한 업체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체 폐기물 이적 비용으로 예상되는 600억~8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침출수만 빼내고 있는 지 급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1년에 6억~7억 원이 든다.

완주군과 맞붙은 익산시 낭산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낭산면 폐석산 불법 매립 문제가 수년 위로 드러난 것은 2016년이다. 폐석산을 일반 폐기물로 채워 복구하겠다는 매립업체들의 당초 약속과는 전혀 달랐다.

폐배터리 업체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몰래 섞여 묻힌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한 침출수에선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포함한 각종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의 682배 이상 검출됐다.

폐기물 매립 참사는 도내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뒤늦게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버릴 뎀 쉬워도 내보낼 뎀 하세월'이다. 지역 주민들의 체면만 쌓일 뿐이다.

독자제언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 꼭 확인하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렌탈(대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단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작성이 간편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전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잘 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전할 잘해야만 잘 타는 것이 할 수 없고, 안전하게 전

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리를 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 애용자들은 강화된 처벌 규정의 세부 내용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세부 처벌내용은 헬멧 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 3만원,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만원, 음주측정거부 13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